

친일작가 張赫宙 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학 동*

目 次

머리말

I. 日帝時期 張赫宙의 삶과 문학

1. 生來의 열등의식과 早婚의 갈등
2. 初期의 민족적 투쟁의지와 작품
3. 친일로 변전되는 작가적 태도와 작품
4.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예찬

II. 張赫宙 옹호론의 실태와 문제점

1. 시라카와(白川)의 「張赫宙研究」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평가의 문제점
3. 한국인에 의한 張赫宙 문학 연구와 정체성의 혼란

맺음말

머리말

張赫宙¹⁾는 1932년 4월에 식민치하에서 착취당하는 조선농민의 저항을 그려낸 「餓鬼道」를 일본의 문예잡지 『改造』에 투고하여 입선한 뒤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일본어로 써서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민족의 비참한 실상을 고발하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후에도 「쫓기는 사람들(追われる人々)」(1932,10), 「奮起하는 者(奮い起つ者)」(1933,9)와 같은 동반자적인 작품을 발표하여 「餓鬼道」의 작품 성향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근대(재일조선인)문학 전공.

1) 張赫宙 : 1905~1998, 일본명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필명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

그런데 1935년에 출간한 두 번째 작품집 『仁王洞時代』에서는 식민지적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가적 체험이나 소시민적 생활을 그려냄으로써 이전의 민족적 저항의식에 바탕을 두던 작품세계와는 거리를 두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본어 작품에 대한 조선내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한 그는 「文壇페스트菌」(『三千里』, 1935)과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함(朝鮮の知識人に訴ふ)」(『文芸』, 1939) 같은 글을 발표하여 능력 있는 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조선 문단의 현실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가는 기생인 생모와 연상의 아내에 대한 혐오감으로 방황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간통 사건을 일으켜 일본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후의 작가적 행보는 입신출세를 위한 친일적 작품의 집필로 경도되어 간다.

일제의 국책적 작품을 쓰기 시작한 장혁주는 단편집 『이와모토 지원병(岩本志願兵)』(1944)을 비롯한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제의 만주침략과 내선일체에 의한 황국신민화의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가적 행적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임종국이 『親日文學論』(1966)을 통해 친일문학가로, 일본에서는 任展慧와 하야시 고지(林 浩治) 등이 시국에 영합하여 변절한 작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장혁주 문학 연구자 중의 일부는 친일문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접근을 시도한다는 명목 아래 새로운 평가를 내리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동향은 자칫 장혁주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희석시키고, 그의 행적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장혁주의 작가적 행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의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문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릇된 아량으로 이를 감싸 안으려는 일부 연구자의 태도와 사사로운 동정의식에서 비롯된 옹호론적 평가가 지닌 모순 및 오류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 日帝時期 張赫宙의 삶과 문학

장혁주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생모로 인해 유년시절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는데, 이는 작가를 심각한 열등의식 속에 빠트리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생모의 강요로 15세의 어린나이에 4살 연상의 여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구식이며 애정도 없는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은 작가를 일본에 정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

본장에서는 작가의 生來의 열등의식 및 早婚에 대한 혐오감의 형성원인을

살펴보고, 친일로 경도되어 가는 작가적 행적과 작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生來的 열등의식과 早婚의 갈등

장혁주는 을사보호조약이 조인된 해인 1905년 10월에 장두화(張斗化)의 서자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장은중(張恩重)이다. 부친 장두화는 구 한국군 장교를 지낸 지주였고, 어머니는 기생출신의 첩이었다.²⁾ 이러한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그는 자전적 작품 『편력의 조서(遍歷의 調書)』를 통해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기생인 어머니가 요릿집을 경영하던 경주에서 보통소학교를 다닐 때는 “애비 없는 자식”³⁾이라며 놀림을 받았고, 후에 작가를 대구로 데려간 親父 두화로 부터는 “아무리 가르쳐도 너는 안 되겠다. 태생이 천하니 교육으로는 못 고친다, 껌뻌한 놈 같으니”⁴⁾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러다보니 가정과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가 14세 되던 해에 그를 데리러온 親父를 대면하고 느낀 감정은 그의 부모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때 나는 자신의 몸이 성행위로 더럽혀진 듯한 기분을 확실히 느꼈다. 그것은 나의 생모가 다른 남자와 부둥켜안고 있는 것을 봤을 때의 감정과 닮은 것으로 좀 더 복잡하고 기괴한 느낌이었다. 이 느낌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⁵⁾

대구로 온 후에 작가는 嫡母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뒤로 자주 “음탕한 행위에 빠져있는 저의 생모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소서”⁶⁾와 같은 기도를 하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생모에 대한 애증의 골이 그만큼 깊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생모와 친부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과 회의는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고체계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의 작가적 행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가는 15세 되던 해에 경주의 생모를 찾아갔다가 그녀의 강요에 의해 4살 연상인 金貴行과 결혼하게 된다. 후에 嫡母가 사망하자 경주에 있던 생모는 며느리 貴行을 데리고 대구로 와 친부의 정실로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된다.

그런데 대구고보를 좋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작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퇴학당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된다. 그들은 아나키스트나 다

2) 野口赫宙(1954) 『遍歷의 調書』, 新潮社.

3) 주 2)와 같은 책 94쪽.

4) 주 2)와 같은 책 94쪽.

5) 주 2)와 같은 책 94쪽.

6) 주 2)와 같은 책 98쪽.

다이스트, 또는 殺親黨 및 未婚 첩 등을 외치며 마치 민족해방운동가라도 되는 양 술집을 전전했다.

작가는 당시를 회상하여 “그중에 8월이 未婚者로서, 구식이고 연상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양친과 투쟁”⁷⁾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무리들과 어울린 것도 “민족의 본능은 반절 이하였고, 실은 생모와 貴香⁸⁾에 대한 불만이 당시의 행동의 주체였다”⁹⁾는 심정을 토로한다. 자신의 방향이 생모와 연상의 부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2. 初期의 민족적 투쟁 의지와 작품

장혁주는 생모와 아내에 대한 반감으로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1926년에 경북 청송군 安徳面立 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부터는 소설가가 되겠다며 습작을 시작한다. 이후 조선어 작품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 투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당선되지 않자 일본어 창작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던 작가는 1932년에 「餓鬼道」를 문예잡지 『改造』에 투고하여 입선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조선에서도 일본에서 출세한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餓鬼道」는 가뭄의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 청송군 농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저수지 공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인부로 동원된 인근 농민들에 대한 십장(什長)들의 가혹한 착취와 학대, 그리고 감독의 공사대금 횡령 등을 그려내고 있다.

「餓鬼道」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는 「白楊木」(『大地に立つ』, 1930. 10), 「하쿠타 농장(迫田農場)」(『文學クオタリイ』, 1932. 6), 「쫓기는 사람들(追われる人々)」(『改造』, 1932. 10)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이들 민중의 비참한 생활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다. 호소하련다. 나의 문학은 이를 위해 존재하며, 여기에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¹⁰⁾고 작가 스스로가 다짐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자했던 민족적 투쟁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품세계는 이내 변화의 징조를 보이게 된다. 1934년 6월에 단편집 『권이라는 남자(權といふ男)』를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권이라는 남자(權といふ男)」(『改造』, 1933. 12), 「갈보(ガルボウ)」(『文藝』, 1934.

7) 주 2)와 같은 책 147쪽.

8) 장혁주의 조선인 아내의 본명은 金貴行이나, 『遍歴の調書』에는 貴香으로 등장한다.

9) 주 2)와 같은 책 147쪽.

10) 張赫宙(1933) 『僕の文学』(白川 豊南富鎮編(2003) 『張赫宙日本語作品選』, 勉誠出版, 290쪽) 수록.

3), 「소년(少年)」(초출 미상), 「아내(女房)」(『文芸首都』, 1934. 1), 「형의 다리를 자르다(兄の脚を截る)」(『文芸首都』, 1933. 5), 「산신령(山靈)」(초출 미상), 「餓鬼道」의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산신령」과 「餓鬼道」를 제외하면 식민치하 조선민중의 애환과 투쟁을 담은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권이라는 남자』의 출간은 당시의 장혁주 문학이 민족적 저항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3. 친일로 변전되는 작가적 태도와 작품

장혁주는 1934년 4월에 발표한 「나의 포부(我が抱負)」를 통해 인간 개인의 “사회생활 안쪽 깊숙한 곳”¹¹⁾을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작가적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가 이전에 우리 민족의 처지를 예술화하여, 그에 의해 영원히 널리 세계에 알려 려 했던 열의가 언제 이것에 의해 대체될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다.¹²⁾

이후의 작가적 행보는 1935년 6월에 출간한 두 번째 작품집 『仁王洞時代』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의 포부」에서 밝힌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번째 작품집에는 「一日」(『改造』, 1935. 1), 「劣情者」(『行動』, 1934. 6), 「16일 달밤에(十六夜に)」(『文藝』, 1934. 11), 「늑대(山犬)」(『文芸首都』, 1934. 5), 「장례식날 밤에 생긴 일(葬式の夜の出來事)」(『文藝』, 1934. 8), 「愚劣漢」(『文藝』, 1935. 4), 「仁王洞時代」(『兒童』, 1934. 11~1935. 3)의 7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1934년 3월부터 이듬해인 1935년 3월 사이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 중에 「一日」과 「劣情者」는 주인공이 도시의 샐러리맨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금전과 가정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시민적인 이기주의자이고, 당시 조선의 사회상황인 식민지적 현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¹³⁾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16일 달밤에」 「장례식날 밤에 생긴 일」 「仁王洞時代」는 풍자적인 묘사로 양반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仁王洞時代」는 뼈대 있는 양반가문에 들어간 기생의 자식이 심한 차별과 학대를 경험한다는 허구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작가 자신의 유년시절을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작품이라 하겠다. 그리고 『仁王洞時

11) 張赫宙(1934) 「我が抱負」(주 10)과 같은 책 294쪽 수록.

12) 주 11)과 같은 책 295쪽.

13) 孫才喜(2005) 「張赫宙文学における連続と非連続—戦前から戦後にかけて—」(鈴木貞美編 『日本文化の連続性と非連続性、1920年—1970年』, 勉誠出版, 154, 155쪽) 수록.

代』에 수록된 작품 중에 가장 늦게 발표된 「愚劣漢」은 부패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의 실상을 그리고 있는데, 1936년 9월에 발표한 「심연의 사람(深淵の人)」과 맥락을 같이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심연의 사람」이 민족해방운동에 회의를 느끼는 지식인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가의 정신적 퇴락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무렵의 장혁주에 관해 南富鎭은 『문학의 식민지주의(文學の植民地主義)』에서 “1936년 여름, 「文壇페스트菌」¹⁴⁾ 사건에 의한 조선문단에서의 고립과, 여류작가 백신애(白信愛)와의 연애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창작의 거점을 동경으로 옮긴다”¹⁵⁾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가 조선을 떠나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소설가 백신애와의 간통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자전적 작품 『편력의 조서』에 그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백신애의 남편이 작가를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신에 상해나 홍콩으로 떠나라는 조건을 제시해온다. 그런데 그는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 상해로 간다고 하고는 도쿄에 정착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동경에 정착하게 된 작가는 하숙집에서 글을 쓰고 있었으나 별로 진척도 없고 음식도 잘 맞지 않아 실의에 빠진다. 그때 하숙집 주인의 친척으로 소학교 교사인 게이코(圭子)¹⁶⁾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게이코는 작가가 잡지에 투고한 작품의 충실한 독자이자 상담자였다.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불우한 生來의 조건과 조선 부인인 貴香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당사자의 납득을 얻어냈음에도 생모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등의 고백¹⁷⁾을 하자 그와의 동거를 결심하고 신사에 가서 자신들만의 결혼을 올리자고 말한다. 이에 작가는 “29년 생애의 불행이 이 순간에 사라져버렸다”¹⁸⁾라든가, “자신의 작품의 고향을 이 땅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 옳았다”¹⁹⁾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고국의 생모는 작가에게 서둘러 돌아오라는 편지를 자주 보내왔다. 그러나 그는 “나는 생모와 그 며느리인 貴香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왔다. 생모의 말대로 한다면 다시 그 사음(邪淫)의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다”²⁰⁾라며 스스로 다짐

14) 1935년 10월 『三千里』(7-9)를 통해 발표한 이 글에서 장혁주는 자신이 일본어로 쓴 작품들을 평가절한 당시의 조선문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 南富鎭(2006) 『文學の植民地主義』, 世界思想社, 57쪽.

16) 『遍歴の調書』에는 소학교 교사로 묘사하고 있으나, 또 다른 자전적 작품 『嵐の詩』에서는 요릿집의 허드렛일을 하는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게이코가 장혁주와의 동거 이후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직 미성년이라서 그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었다는 등의 생활환경으로 보아 소학교 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주 2)와 같은 책 50쪽.

18) 주 2)와 같은 책 51쪽.

19) 주 2)와 같은 책 32쪽.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1936년 무렵의 장혁주는 이미 조선문단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生來的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조선의 유교사회에 대한 경멸과 早婚한 조선인 아내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는 열망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앞에 게이코 부인이 천사처럼 나타남으로써 일본에의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때마침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 내선일체에 의한 황국신민화가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의 모든 것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그에게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협조를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하겠다.

4.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예찬

장혁주가 완전히 친일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1939년 2월에 발표한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함(朝鮮の知識層に訴ふ)」(『文芸』)이라는 평론을 발표한 전후로 보는 견해²¹⁾가 지배적이다. 이 평론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제6장의 중반부까지는 ‘민족의 격정성(民族の激情性)’ ‘침착성의 결여(落着きのない)’ ‘정의심의 결여(正義心がない)’ ‘퇴영적 질투(退嬰的嫉妬)’ ‘비뚤어진 심성(ひねくれ)’을 개선하여 민족의 부흥을 도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얼핏 조선민족을 위한 논리를 전개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5장에서 자신이 일본어로 각색한 ‘春香傳’을 평가하지 않는 조선문단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에 대한 불만을 민족의 단점으로 비약시켜 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6장의 후반부에서는 내선일체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국어로서의 일본어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제7장은 내선일체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으로 일관한다.

우리들이 만일 완전히 내지화해 버린다면 우리들은 자연히 침착하고 비뚤어지지 않은 심성의 민족이 되리라는 것은 앞장의 논법이라면 가능하게 된다. 이 내지화라고 하는 것은 작금의 미나미 조선총독의 내선일체 운동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중략) 군부정치가 시작되고부터는 일종의 양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즉 이상정치가 시작된 것이다.²²⁾

평론 「조선의 지식층에게 호소함」은 한마디로 일본에서 평가받고 있는 자신을 홀대하는 조선인의 편협한 근성은 고쳐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20) 주 2)와 같은 책 34쪽.

21) 林鐘國(1966)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기념본, 2002, 327쪽.

22) 張赫宙(1939,2) 『朝鮮の知識人に訴ふ』 『文芸』, 238쪽.

위해서는 군부정치에 의한 내선일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작가적 태도를 통해 엿보이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일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작가로서의 사회적 입지를 굳혀가려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표명한 장혁주는 1939년 4월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발표하여 임진왜란을 소재로 다룬 역사소설의 집필을 시작한다. 이후 '7년의 폭풍(七年の嵐)'이라는 제목으로 제1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제2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제3부 李舜臣, 제4부 명나라 사신 沈惟敬을 주인공으로 하는 4부작을 구상한다.²³⁾ 그러나 실제로는 가토를 주인공으로 한 『칠년의 폭풍(七年の嵐)』(1941), 고니시를 그린 『和戰 어느 쪽도 不辭하다(和戰何れも辭せず)』(1942)와 『浮沈(浮き沈み)』(1943)만을 집필한 채 중단 되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소재로 왜장의 활약을 그려낸 일련의 작품에 대하여 하야시 고지(林 浩治)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조선인인 장혁주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군국일본에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²⁴⁾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任展慧 역시 “자기민족의 역제자를 영웅으로 그려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작가-인간과 문학에 있어 이 이상의 수치스러운 타락이 있을 수 있겠는가”²⁵⁾라며 장혁주의 작가적 태도를 비판한다.

장혁주의 친일적 작품의 집필은 그의 활발한 대외적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39년 6월에 拓務省에서 파견하는 펜부대의 일원으로 만주에 건너가 시찰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의 패전 때까지 네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1940년 1월에는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동경지국이 주최한 ‘東京在住半島名士座談會’에 참석하여 내선일체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하였다. 그리고 1942년 9월에는 반도의 급속한 황도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동경에서 창립된 신반도문화연구소에도 참여하였다. 그런가하면 1943년 8월에는 鑛山문학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944년 초에는 조선의 황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 고문단인 ‘皇道朝鮮研究委員會’ 회원으로 여러 탄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집필된 그의 작품들은 자신이 보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내선일체와 일제의 만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開墾』(中央公論社, 1943. 4)을 비롯하여, 『幸福の民』(南方書院, 1943. 4), 「국경의 비극(國境の悲劇)」(『大陸』, 1939. 8), 「氷解」(『新滿洲』, 1939. 7), 「密輸業者」(『改造』, 1940. 5), 「거울의 성(鏡の城)」(『金融組合』,

23) 張赫宙(1942)「後記」『和戰何れも辭せず』, 大觀堂, 455, 456쪽.

24) 林 浩治(1991)「張赫宙論」『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論』, 新幹社, 232쪽.

25) 任展慧(1994)『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 法政大学出版局, 210쪽.

1944)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집필 동기는 『開墾』의 ‘후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개척민과 일반 독자들에게(만주국민, 중화민국의 사람들도 물론) 만주건국의 높은 이상을 파악하는 방편으로서도 이 소설에 묘사된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략) 만보산 부락과 그 외의 개척지 시찰에 있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신 조선총독부 척무과 및 신경의 일본대사관 조선과, 척식위원회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소설이 개척 사업에 다소나마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다행이겠다.²⁶⁾

만주국 건설의 이상을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일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집필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당시의 친일적 작품 활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

식민지 조선에 징병제 실시가 공포된 것은 1943년 3월 1일이고, 같은 해 7월 28일에는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했다. 조선의 청년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 것인데, 장혁주는 이러한 일제의 움직임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1944년 1월에 노구치 미노루(野口稔)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단편집 『이와모토 지원병(岩本志願兵)』이다. 이 작품집에는 「이와모토 지원병」(『毎日新聞(東京)』, 1943. 8. 24~9. 9), 「새로운 출발(新しい出發)」(『國民總力』, 1943. 6. 15~9. 15(전7회)), 「夢」(『北海道帝大新聞』, 1943. 2. 23), 「어느 篤農家の 畝회(ある篤農家の述懷)」(『綠旗』, 1943. 1), 「出發」(1943. 8. 6. JOAK 방송)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어느 篤農家の 畝회」만이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농사에 전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병제 실시에 따른 조선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모토 지원병」은 작가 자신이 1938년 4월 서울 근교의 지원병 훈련소에 3일간 특별 입소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일본 거주 조선인 청년인 이와모토(岩本)가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있는 고마진자(高麗神社)²⁷⁾에 참배한 것을 계기로 내선일제가 허구가 아님을 깨달아 우수한 병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집 『이와모토 지원병』은 작가 스스로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비할 바 없이 큰 감격”²⁸⁾이었고, 皇民化 완성의 기운이 ‘징병제 실시로 더욱 고조된 것’을 기리기 위해 일제의 지원으로 출간되었다.

이상과 같은 장혁주의 식민지 말기의 작가적 행적에 대하여 任展慧는 “서류

26) 張赫宙(1943) 「後記」 『開墾』, 中央公論社, 346, 347쪽.

27) 나당연합군에 패한 고구려의 유민 3천여 명이 건너와 정착하여 자신들의 왕 약광(若光)을 모신 사당.

28) 野口稔(張赫宙)(1944) 「序に代へて」 『岩本志願兵』, 興亞文化出版, 1쪽.

에 교묘히 편승하여 일본문단에서의 입신출세를 지속하려던 장혁주는 마침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 수행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타락했다”²⁹⁾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작가로서의 양심을 속이고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려는 연구자의 견해로서 매우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II. 張赫宙 옹호론의 실태와 문제점

장혁주의 작가적 행적과 작품은 제 I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林鍾國, 일본의 任展慧, 하야시 고지(林 浩治) 등과 같은 연구자에 의해 초기의 민족적인 작품을 추구하던 자세에서 친일협력으로 변절한 작가로 평가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장혁주의 해방 이전의 작품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 「張赫宙研究」³⁰⁾로 주목을 받은 시라카와 유타카(白川 豊)를 비롯한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湊), 南富鎮, 金貞淑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장혁주 문학에 대한 옹호론적 발언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장혁주의 친일협력적 글쓰기를 인정한다면서도 ‘친일’이라는 고점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장에서는 이들의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장혁주 문학에 대한 옹호론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시라카와(白川)의 「張赫宙研究」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라카와 유타카의 「張赫宙研究」는 해방 이전의 장혁주 문학 전반에 걸친 고찰을 목표로 한 논문이다. 한국어 및 일본어로 집필된 거의 모든 작품을 망라하여 개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목록과 연보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어서 작가의 문학적 행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 작품의 분류기준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작가의 친일적 행적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張赫宙研究」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는데, 먼저 林鍾國이 『親日文學論』에서 논하고 있는 「張赫宙論」³¹⁾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자료의 발굴과 정리에 들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친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기 작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1937년부터

29) 주 25)와 같은 책 212쪽.

30)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31) 주 21)과 같은 책 326-337쪽.

45년까지의 작품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³²⁾며 문제를 제기 한다.

그러나 林鍾國의 「張赫宙論」은 『親日文學論』이라는 저서의 목적에 따라 친일에 관련된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11쪽 정도로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므로, 장혁주의 작품 전반에 대한 고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그리고 『親日文學論』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장혁주의 민족적인 작품의 존재가 함께 거론되었다 해도 친일문학가로서의 위상이 바뀌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설사 친일적인 작품이 단 한편에 불과하다해도 얼마든지 친일작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 연구자 任展慧는 장혁주와 김사량을 비교하여 ‘屈辱과 反抗’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연구³³⁾를 한 바 있는데, 시라카와는 이에 대해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장혁주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두 작가를 “一刀兩斷 구별하여 잘라 말할 수 있을까”³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시라카와 자신 역시 장혁주와 김사량을 대비시켜 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장혁주와 김사량을 모두 알고 지내던 유아사 가즈에(湯淺克衛)는 훗날 1942년 무렵을 회상하여, “張赫宙도 필자도 세심한 주의를 해서 그리는 각도를 바꿔왔었는데, 金史良은 대담하게 맞서 아슬아슬한 曲藝로 위험을 헤어나곤 했었다”³⁵⁾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시라카와는 이를 「張赫宙研究」에 인용한 뒤, “오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직언을 했던 김사량과, 오해를 살까봐 필요 이상으로 변명한 장혁주”³⁶⁾라는 식의 비교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장혁주의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친일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김사량의 굽히지 않는 저항정신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任展慧가 이미 언급한 ‘屈辱과 反抗’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시라카와는, 金石範의 「在日朝鮮人 文學」³⁷⁾과 하야시 고지의 「張赫宙論」³⁸⁾에서 장혁주를 일제의 앞잡이로 비난한 것에 대해, 任展慧의 견해를 답습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장혁주의 자세를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³⁹⁾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張赫宙研究」를 통한 기존 연구자들에 대한 시라카와의 비판은 재일조선인인 任展慧와 金石範, 그리고 일본인인 하야시 조차

32) 白川豊(1989) 「張赫宙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5쪽.

33) 任展慧(1965,11) 「張赫宙論」 『文學』, 92쪽.

34) 주 32)와 같은 논문 6쪽.

35) 湯淺克衛(1953) 「朝鮮を扱った日本の小説と日本に紹介された朝鮮文学」 『花郎』, 秋季号, 12쪽. ; 주 32)의 논문 113쪽 재인용.

36) 주 32)와 같은 논문 113쪽

37) 金石範(1976) 「在日朝鮮人 文學」 『岩波講座、文学8』, 271쪽.

38) 林 浩治(1983) 「張赫宙論」 『季刊三千里』36号, 秋.

39) 주 32)와 같은 논문 7쪽.

장혁주를 한국인으로 생각하여 논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시라카와의 인식은 자신이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한 장혁주를 동정과 우호적인 시선으로 감싸 안으려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식민지 말기의 장혁주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표출시킨 것이라 하겠다.

장혁주 문학의 특수성은 조선인으로서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협력해간 작가적 배경과 정서가 문학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라카와는 당시의 작가를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나 그 중간적인 존재로 취급함으로써 장혁주 문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평가의 문제점

시라카와의 논리적 모순은 「張赫宙研究」 뿐만이 아니라, 장혁주 문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복간한 『開墾』과 『岩本志願兵』의 ‘후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는 “장혁주의 1945년 8월까지의 일본어작품 70여 편 중에 시국 국책관련 작품은 본서에 수록된 작품을 포함해서 10편 정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연하고 싶다”⁴⁰⁾는 언급도 보인다. 친일적 작가로 낙인찍힌 장혁주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문장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친일로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문학적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의 시도 역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작품 중에 친일은 얼마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의 자세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시라카와의 장혁주 문학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보편성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의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조선침략을 다룬 작품 『和戰 어느 쪽도 不辭하다』를 평하는데 있어 이미 친일로 경도된 작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연구 자세를 취한다.

小西行長에는 行長の ‘誠’이 있고 清正나 舜臣에게는 제각기 ‘誠’이 있으며 沈惟敬에게는 또 惟敬 나름의 ‘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誠’을 쓰는 것이 이 장편의 안목이고, 戰役 자체는 둘째 문제이다.⁴¹⁾

40) 白川豊(2001) 「張赫宙作『岩本志願兵』について(解説)」 『岩本志願兵—日本植民地文学精選集(朝鮮編) 12』, ゆまに書房, 9, 6쪽.

41) 張赫宙(1943) 「後記」 『浮き沈み』, 河出書房, 353쪽.

인용문은 고니시를 주인공으로 그려낸 또 다른 작품 『부침』의 작가 「후기」의 일절인데, 시라카와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親日・國策迎合의인 색채는 전혀 없다⁴²⁾는 주장을 편다.

한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湊)도 시라카와의 이러한 주장과 매우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장혁주의 최초의 충성은 『가토 기요마사』”⁴³⁾라는 임진왜의 발언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토 기요마사를 영웅으로 기리려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조선이 왜 쉽사리 가토에게 ‘조선정벌’의 공훈을 세우게 했는가, 라는 의문을 해명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즉, 장혁주의 「가토 기요마사」는 일본군이 승리한 戰記가 아니고, 조선군이 패퇴한 戰記이며, 말하자면 왜 조선이 일본에 패했는가를 주제로 한 소설인 것이다.⁴⁴⁾

시라카와와 가와무라 두 연구자의 견해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침략)한 일본의 장수나 이를 막아선 조선의 장수 모두 각각의 합당한 ‘誠’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조선이야 말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일제에 영합하지 않고 충실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려낸 장혁주는 훌륭한 작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혁주의 임진왜란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야 말로 당시의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집필된 것이라는 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놈들(양반계급; 필자)의 악업에 대한 대가야. 문란했던 일상의 벌이지. 포악한 짓들의 보답인 게야. 우리를 개나 돼지 취급을 하며 멸시한 대가라고. (중략) 왜병에게 발각되더라도 하면 양손을 비벼대며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며 가련하게 애원하는 모습이란..... 45)

『가토 기요마사』에서 가토가 거느린 왜병이 성내로 진격해 들어오자, 조선의 무당이 왜군 진영내로 들어와 병사들을 위해 굶판을 벌이며 하는 말이다. 장혁주의 임진왜란을 소재로 다룬 작품에서는 이처럼 양반이라는 자들의 독선과 만행으로 조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치중

42) 주 32)와 같은 논문 24, 25쪽.

43) 주 25)와 같은 책 209쪽.

44) 川村 湊(1993) 「金史良と張赫宙」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6—抵抗と屈従—』, 岩波書店, 227, 228쪽.

45) 張赫宙(1939) 『加藤清正』, 改造社, 26쪽.

하고 있다. 반면에 왜군의 침입으로 무고한 조선의 민중이 살해되고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장혁주의 작품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일제의 만주개척을 다룬 소설 『開墾』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은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의 지난한 삶과 일제의 만주국 경영에 대한 굴절된 이상이 교차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황민으로서의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춘일본총영사관 영사와 경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황국신민화에 대한 조선인의 거부감을 없애고 일제의 대동아 경영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國策的 작품인 까닭이다.⁴⁶⁾ 그럼에도 시라카와 같은 연구자들은 『開墾』이야말로 친일작가로 외면당해온 장혁주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우수한 작품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의 작품이 소외되어 온 것은 친일작가라는 낙인이 찍힌 탓이라며 이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⁴⁷⁾

일본의 연구자들이 『和戰 어느 쪽도 不辭하다』 『가토 기요마사』 『開墾』 등의 친일적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開墾』에 등장하는 장춘총영사관의 영사나 경찰, 임진왜란 때의 장수 고니시와 가토 등이 모두 각각의 ‘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작가의 탁월한 재능으로 형상화한 작품세계에 동화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처럼 현재의 연구자들마저 감화시킨 장혁주의 작품은 일제치하의 수많은 친일협력자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가의 집필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작품의 내용전개에 동화되어 버린 일본 연구자들의 문학적 평가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국인에 의한 張赫宙 문학 연구와 정체성의 혼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 南富鎭과 金貞淑 등의 장혁주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시라카와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이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혁주 문학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분석하기보다 작가의 개인적 입장에 동화되어 이를 추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혁주의 일본어소설은 일률적으로 시국에 영합한 것은 아니다. 또 그의 국책

46) 김학동(2007,8) 「張赫宙의 『開墾』과 萬寶山사건」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7) 白川豊(2000) 「張赫宙作 『開墾』について(解説)」 『開墾—日本植民地文学精選集(朝鮮編)3』, ゆまに書房, 解説 5쪽.

적인 언설에 있어서도 그것은 결코 다른 조선의 작가에 비해서 심한 것이 아니다. (중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늘 반복되는 ‘친일인가 반일인가’를 판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조선을 그렸는가라는 것이 문학적인 명제인 것이다.⁴⁸⁾

이상과 같은 南富鎭의 입장은 시라카와의 주장과 거의 흡사하여 재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장혁주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여러 작품들은 이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문학적으로만 고찰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작가가 태생적으로 불운하고 식민치하라는 불행한 시기를 살았던 만큼 작품을 논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한다.⁴⁹⁾ 그러나 이 역시 연구자로서 절제해야 할 감상적 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南富鎭은 또 장혁주의 『이와모토 지원병』과 김사량의 『바다의 노래』(『每日新報』, 1943. 12~1944. 9)를 비교하여 장혁주 작품이 오히려 “국책에 대한 영합의 정도가 적다”⁵⁰⁾고 주장한다. 일제에 대한 저항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사량 역시 본질적으로 장혁주의 문학행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혁주의 『이와모토 지원병』과 김사량의 『바다의 노래』는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이와모토 지원병』은 작가의 말처럼 “징병제 실시는 조선의 황민화를 인정받은 날”⁵¹⁾을 기념하기 위해 집필된 작품집으로, 다섯 편의 황국신민화를 열망하는 내용의 단편을 실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한글로 집필된 『바다의 노래』는 주인공 신별장(申別將)의 손자 귀동(貴童)이 ‘해군특별지원병’의 공포와 함께 입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책문학에 가담한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격동하는 조선근대사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김사량 자신의 분신을 그려내려는데 치중하고 있을 뿐, 장혁주의 많은 작품에서 부르짖고 있는 황국신민화의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이 작품에 대해 추석민은 『김사량 문학의 연구(金史良文學の研究)』에서 “일제에 의해 궁지에 몰린 문학자의 고뇌와 괴로움, 그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책문학에 가담하면서도 혼까지 않는 팔지 않으려는 고투의

48) 南富鎭(2003) 「解説—日本語への欲望と近代への方向」(南富鎭·白川 豊編 『張赫宙日本語作品選』, 勉誠出版, 326-328쪽) 수록.

49) 주(48)와 같음.

50) 南富鎭(2001) 『近代文學の〈朝鮮〉體驗』, 勉誠出版, 278쪽.

51) 張赫宙(1944) 「序に代えて」 『岩本志願兵』, 興亜文化出版株式会社. 1, 2쪽.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⁵²⁾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은 南富鎮의 단편적인 언급과는 달리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4부작 중의 제1부 『悲壯의 戰野(悲壯の戰野)』의 前篇에 해당하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金貞淑은 보다 적극적인 장혁주 옹호론을 펼친다.

이 작품이 단순히 ‘친일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근거의 하나는, 장혁주의 출판계획표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작품의 내용은 결코 일본 측에 편향되어 있지 않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⁵³⁾

여기에서 말하는 ‘출판계획표’란 『悲壯의 戰野』의 「후기」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七年의 暴風’이라는 제목의 4부작으로 제1부는 가토 기요마사, 제2부는 고니시 유키나가, 제3부는 李舜臣, 제4부는 沈惟敬을 주인공으로 쓰겠다던 장혁주의 집필 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金貞淑은 작품의 집필 계획에 이순신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친일문학’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집필되지도 않았고, 설사 집필 되었다 한들 왜적에 대한 이순신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있었을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침략에 대한 합리화와 왜장들의 찬미를 위해 이순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 金貞淑은 『가토 기요마사』가 결코 일본 측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는데, 기요마사가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잠시 당시의 기요마사를 필두로 한 왜장들의 만행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침략은 특히 잔학행위가 심했다. 첫째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내 모은 뒤 일본에 보냈다. 이것은 본래, 수급에 대신해서 戰功을 증명하여 은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투원에서 시작하여 남녀노소에까지 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자기 목적화 되어버렸다. 둘째로, 많은 조선인을 포로로서 일본에 연행했다. (중략) 이외에도 방화·대량살육 등 헤아릴 수 없지만, (후략)⁵⁴⁾

이러한 만행의 선봉에 서서 자신들의 공적을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기요마사와 유키나가였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을 공정한 입장에서 집필한다는 것은 이들의 만행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들을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는 작가의 태도를 두고 일본 측에 편향되어

52) 秋錫敏(2001) 『金史良文學の研究』, 제이앤씨, 370쪽.

53) 金貞淑(2006) 「張赫宙連作小説「七年の嵐」論(その一)―『加藤清正』―」 『芸文攷』(通号11), 6쪽.

54) 池 享(200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87쪽.

있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연구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장혁주는 또한 이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히테요시에게로 돌리려는 술책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기요마사를 비롯한 왜장들이 히테요시의 명을 앞 다투어 따랐던 것은 전공을 세워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히려는데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이 장혁주의 친일적 작품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작가의 일본에 대한 동경과 예찬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감싸 안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해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인 연구자들이 이러한 작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인식의 부재와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장혁주의 개별적인 작품의 고찰에 앞서 그의 전반적인 인생역정과 집필 배경 및 작품경향 등을 시야에 넣는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장혁주 문학에 대한 옹호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친일’을 했다고 해서 작품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로카와 소(黒川創)는 ‘〈外地〉의 일본어문학선’이라는 부제가 붙은 『朝鮮』의 편집 책임자로서 장혁주, 김용제 등의 작품을 이곳에 수록하지 않은 이유를 책 말미의 「해설」에 밝히고 있다.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일본국가에 익찬적인 문학으로 전향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일련의 작품에 문학으로서 산만하다는 약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이유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문학으로서의 약점이 그들의 정치적인 변전과 결부되어 있다고 나 자신은 생각한다.⁵⁵⁾

구로카와는 장혁주 문학의 산만함이 친일로 변전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을 관류하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林鍾國, 任展慧, 하야시 고지와 같은 연구자들도 모두 같은 맥락의 연구를 지속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장혁주 문학이 ‘친일’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친일’이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여 그의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냉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55) 黒川 創編(1996) 『朝鮮』, 新宿書房, 330쪽.

맺음말

본고에서는 장혁주의 문학이 그동안 친일문학이라는 평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여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무시당해왔으며, 친일문학의 정도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장혁주의 초기 작품에는 「餓鬼道」와 같이 투쟁적인 입장에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조선민중의 참상을 그려내어 일제에 저항하려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말기의 그는 임전혜가 지적한 것처럼 “시류에 교묘히 편승하여 일본문단에서의 입신출세를 지속하려”했으며, “마침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 수행에 직접 개입할 정도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장혁주 옹호론을 펼치도록 만든 것은 주로 초기의 민족적이고 인간적인 투쟁을 그려낸 작품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인 작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결정적인 시기에 친일협력으로 돌아선 이중적인 행위는 보다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하겠다. 장혁주 문학이 그의 질곡으로 가득한 인생역정을 토대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한민족 전체를 황국신민화로 내몰았던 작가적 행위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혁주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그가 친일적인 작품만을 쓴 것도 아니고 친일의 정도도 심각하지 않으니 괜찮은 작가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친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일본인으로 귀화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적을 남긴 작가에게 있어 ‘민족’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잘못된 예술지상주의적 시각에서 장혁주의 친일작품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도 있는데, 과연 그의 작품이 정치와 종교 등을 초월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들이 일제의 침략정책을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해갔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예술지상주의를 추구하려던 작가들과는 큰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参考文献】

- 金石範(1993) 『転向と親日派』, 岩波書店, 25쪽.
- 金石範(1976) 「在日朝鮮人 文学」 『岩波講座、文学 8』, 271쪽.
- 金貞淑(2006) 「張赫宙連作小説 「七年の嵐」論(その1)」, 文芸叢(通号11).
- 김학동(2007,8) 「張赫宙의 『開墾』과 万宝山사건」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南富鎮(2003) 「解説—日本語への欲望と近代への方向」, 南富鎮白川豊編 『張赫宙日本語作品選』 勉誠出版, 326-328쪽.
- 南富鎮(2001) 『近代文学の〈朝鮮〉体験』, 勉誠出版, 278쪽.
- 孫才喜(2005) 「張赫宙文学における連続と非連続」(鈴木貞美編 『日本文化の連続性と非連続性、1920年—1970年』, 勉誠出版, 154, 155, 168, 169쪽) 수록.
- 유숙자(2000) 「『餓鬼道』에서 「岩本志願兵」까지」 翰林日文学研究 5, 12.
- 任展慧(1994)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 法政大学出版局, 202, 212쪽.
- 任展慧(1965) 「張赫宙論」 『文学』, 11, 92쪽.
- 林鐘国(1966) 『親日文学論』, 민족문제연구소 기념본, 2002, 327, 326-337, 329쪽.
- 任時正(2003,12) 「張赫宙と著作年譜」, 論究日本文学(79), 立命館大学日文学会.
- 張赫宙(1939) 『加藤清正』 改造社, 26쪽.
- 張赫宙(1933) 「僕の文学」(1934) 「我が抱負」(白川 豊南富鎮編(2003) 『張赫宙日本語作品選』, 勉誠出版, 290, 294, 295쪽) 수록.
- 張赫宙(1939,2) 「朝鮮の知識人に訴ふ」 『文芸』, 238쪽.
- 張赫宙(1942) 「後記」 『和戦何れも辞せず』, 大観堂, 455,456쪽.
- 張赫宙(1943) 「後記」 『浮き沈み』, 河出書房, 353쪽.
- 張赫宙(1943) 「後記」 『開墾』, 中央公論社, 346, 347쪽.
- 野口赫宙(1954) 『遍歴の調書』, 新潮社, 94, 98쪽.
- 野口稔(張赫宙)(1944) 「序に代へて」 『岩本志願兵』, 興亜文化出版, 1쪽.
- 秋錫敏 『金史良文学の研究』 제이앤씨, 2001, 370쪽.
- 池 享(200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87쪽.
- 川村 湊(1993) 「金史良と張赫宙」 『近代日本と植民地 6』, 岩波書店, 227쪽.
- 川村 湊(2000) 『酔いどれ船の青春』, インパクト出版会, 100쪽.
- 黒川 創編(1996) 『朝鮮』 新宿書房, 330쪽.
- 白川 豊(1989) 「張赫宙研究」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5, 7, 8, 10, 20, 25, 60, 86쪽.
- 白川 豊(2000) 「張赫宙作 「開墾」について(解説)」 『開墾—日本植民地文学精選集(朝鮮編) 3』 ゆまに書房.
- 白川 豊(2001) 「張赫宙作 「岩本志願兵」について(解説)」 『岩本志願兵』, ゆまに書房.
- 白川 豊(2002) 「張赫宙의 生涯와 文学」, 布袋敏博編 『장혁주소설전집』 태학사.
- 林浩治(1991) 「張赫宙論」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論』 新幹社, 232쪽.
- 林 浩治(1983) 「張赫宙論」 『季刊三千里』 36号, 秋.

要 旨

張赫宙文学は今まであまり評価されないままきているが、「親日的」作品を書いた作家というレッテルをはられたことにその原因があると一部の研究者は主張している。しかし、こういった主張にはともすると張赫宙文学の本質を暈す恐れがあるばかりでなく、「親日文学」として規定してきた先学の研究成果を一方的に害するきらいもあると思われる。

張赫宙の初期作品には「餓鬼道」のようにプロ文学的傾向を保ちながら、植民地下の朝鮮民衆の惨状を闘争的立場から訴えているものもあれば、植民地経済構造の矛盾により火田民に転落した家庭の哀れな少女の話を描いた「山霊」のように、朝鮮民衆に対する深い愛情を土台にして日本帝国に抵抗を試みた努力も窺える。しかし、植民時代末期になると、「時流をたくみに泳ぎわけることで、日本文壇での立身出世を保持しようとした張赫宙は、ついに、日本帝国主義の侵略戦争の遂行に、直接、手をかすというところにまで墮落したのである」といった任展慧の批判に見られるような冷静な評価を受けることに至るのである。

一部の研究者をして、張赫宙擁護論に転じさせるのは、主に前者に属する民族的な作品群であると思われる。しかし、張赫宙文学の研究においては、親日の度合の問題よりも、彼がどういった環境の下で親日に転じていったのか、日本人に帰化させた動機は何なのか、そして、このような作家的行跡を残した彼においての「民族」とはどんなものであったか、などに対する考察をより具体的にまとめあげるべきもの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張赫宙, 親日文学, 餓鬼道, 開墾, 加藤清正, 岩本志願兵,
権といふ男, 仁王洞時代, 遍歴の調書, 七年の嵐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301-77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 삼부아파트 1단지 6동 53호

電 話 : 016-413-5841

e-mail : ulsasuca@hanmail.net